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11월 26일  
행 정 재 경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11월 12일, 윤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11월 26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난임 및 유산·사산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, 심리적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여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,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, 유산·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
- 유산·사산극복 지원 내용을 신설 (안 제1조, 제3조 ~ 제7조)

- 목적, 정의 수정(안 제1조, 제2조)
- 지원사업 수정(안 제7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24. 1. 2 개정되어 2025. 1. 3 시행 예정인 「모자보건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난임, 유산·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- 동 개정 내용으로는
  -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, 유산·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
  -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는 유산·사산에 대한 용어를 추가하여 조항을 정비하고
  - 안 제7조에서는 유산·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함.
- 자연유산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능력을 갖기 전인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된 상태이며 사산은 임신 20주 이상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함.
- 국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산·사산 사례는 연평균 10만건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유산·사산을 경험한 산모들은 자책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부족할 실정이라고 함.

- 최근 국회에서는 「모자보건법」을 개정(신설 2024. 1. 2)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산·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본 개정안은 이처럼 「모자보건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에 ‘유산·사산을 경험한 부부에 대한 지원사업’ 추진 근거를 신설하려는 취지로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 략

**5. 토론요지** : 생 략

**6. 심사결과** : 원안가결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